

6월 모평 작년 수능만큼 어려웠다

수학 만점자 작년비 99% 감소
“선택과목 따른 유·불리 우려”
미적분 등 선택과목 풀림 심화

지난달 9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가 ‘불수능’이었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

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가 149점, 수학은 147점으로 작년 수능과 동일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지난해 수능은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모의평가는 이와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는 59명으로 전체 국어 응시자 중 0.02%를 차지했다. 작년 수

능에서는 국어 만점자가 28명(0.01%)이었다.
수학 만점자는 불과 13명(0.003%)으로 작년 수능(2,702명, 0.63%)보다 99.5%나 쪼그라들었다.
절대평가로 등급만 나오는 영어 영역도 1등급 학생 비율이 5.74%로 지난해 수능(6.25%)보다도 적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역시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의 1등급 비율은 15.71%였다.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윤리와 사상, 경제가 각각 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과 윤리가 64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지구과학Ⅱ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85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리학 I이 67점으로 가장 낮았다.
절대평가인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1등급 학생 비율은 2.99~13.71%였다.
또 지난해 수능에서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타나고 특히 수학에서 주로 미적분을 선택하는 이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문과 학생들보다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적분 선택 학생 비율이 크게 늘었다.
미적분 선택 학생 비율은 지난해 6월 모의평가 37.1%, 9월 모의평가가 39.3%, 작년 수능 39.7%에서 이번 6월 모의평가가 42.8%로 계속 증가했다.
반면 확률과 통계 선택 학생 비율은 지난해 6월 모의평가가 55.4%, 9월 모의평가가 52.8%, 작년 수능 51.6%, 이번 6월 모의평가가 51.5%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국어 언어와 매체 선택 학생 비율은 지난해 6

월 모의평가가 27.8%, 9월 모의평가가 29.9%, 작년 수능 30%, 이번 6월 모의평가가 35.9%로 계속 늘었지만, 화법과 작문 선택 비율은 72.2%→70.1%→70%→64.1% 등으로 줄어 들었다.
미적분과 언어와 매체 선택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은 이과 중상위권 학생 중 선택과목을 언어와 매체로, 문과 중상위권 학생 중 수학 선택과목을 미적분으로 택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6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9만3,502명으로 이중 재학생은 32만8,489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6만5,013명이었다.
작년 6월보다 재학생은 1만4,141명 줄었으나 졸업생 등이 7,825명 증가했다. 졸업생이 증가한 것은 고차지원을 통해 인문계로 지원한 이과 학생들이 재수하는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환준 기자

2022 광주 장애인아트페어 조직위원회 발대식

2022. 7. 5.(화), 14:00 ~ 15:00 / (사)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아트페어 조직위 발대식 5일 오후 광주시 서구청 2층 들불홀에서 열린 ‘2022 광주 장애인아트페어 조직위원회 발대식’에 참가한 전업 장애인 작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영국서 ‘죽음을 넘어...’ 영문 번역본 출간

최초 5·18 민주화운동 흔적 기록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기록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영문 번역본이 영국 독립출판사에 의해 출간됐다.
5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영국의 독립출판사 베서우는 지난 5월 이 책을 영어로 옮긴 ‘광주 봉기,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반란’ (Gwangju Uprising The Rebellion for De-

mocracy in South Korea)을 펴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주체인 광주시민들이 남긴 흔적들을 최초로 기록한 도서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대학생, 사회운동가 등 10명이 1981년부터 4년 간 모은 자료가 토대다.
1985년 초판이 풀빛출판사를 통해 나올 예정이었지만 제본소에 맡긴 1만여권이 압수돼 한 동안 금서로 지정됐다. 같은해 여름 책의 내용

이 주간지에 연재되면서 이를 복사·유통한 사람들에 의해 빛을 보게 됐다.
1999년 미국 UCLA 대학에서 ‘광주 일기’ (Gwangju Diary)라는 학술 자료로 번역 출판되기도 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시민의 시각과 목소리를 담아 전두환 정권 탄쟁의 원죄에 해당하는 예민하고 아픈 대목을 들춰냈다. 학술 집단의 폭력성을 알렸다.
출간 32년 만인 2017년에는 현장 계엄군이 주고받은 무전 기록, 5·18 이후 군인들이 작성한 수기, 광주 시민군의 증언 등을 담은 개정판이 나왔다. /임채민 기자

‘파출소 피습’ 부실 대응 경찰관 대기발령

최근 여수의 한 파출소에 화살총을 들고 난입한 피습을 붙잡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모 파출소에 근무하는 A팀장을 분서로 대기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A팀장을 비롯한 파출소 직원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2시 15분께 복면을 쓴 20대가 파출소에 들어와 화살총을 쏘고 달아났지만,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건 당시 파출소 직원들은 피습을 화살총을 쏘자 급하게 몸을 숨겼으며, 피의자 조사실에 있던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형사들을 투입해 집으로 달아난 범인을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일단 팀장을 대기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현장 지휘를 맡았던 팀장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여수=곽재영 기자

시교육감 비서관에 이진상 전 전남일보 상무

광주시교육감 비서관에 이진상(57·사진) 전 전남일보 상무가 임용됐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1일자로 이 전 상무를 별정직 5급에 임용했다.
이 비서관은 이진상 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이 교육감과 대학(한양대) 동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별정직은 교육감과 임

기 가 같다”며 “이 비서관이 소통비서관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전남일보 편집국장 겸 편집경영총괄본부장을 역임했다. /최환준 기자



북구,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 추진

광주시 북구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는 물품이나 용역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제도다.

북구는 지난해 구매 목표액인 10억 900만원 대비 188%인 19억 170만원의 구매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8,800만원 증액한 10억 9,700만원을 목표로 우선구매를 실시한다.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부서별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의 필요성과 제품을 알린다. /최환준 기자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무지구(상가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p>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4천)</p> <p>3) 평수140평, (전용100평)</p> <p>사무실, 바,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 시비없음, 시설완비)</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p>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시외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p>
<p>010-6670-9800 (062-382-5500)</p>		